

김진표 21대 국회 신임 의장

“대화 · 타협 · 조정 · 중재의 전당으로”

21대 국회 신임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국회를 대화와 타협, 조정과 중재의 전당으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김 신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갈등으로 절망을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협력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정치는 타협을 이룰 때마다 한뼘씩 성숙해졌다. 저는 정부에서 일할 때 ‘미스터 튜너(Mr. Turner)’ 즉 ‘조정자’로 불렸다”면서 “여러분 모두가 대화와 타협에 능한 국회의원이 되어달라. 저는 조정과 중재에 능숙한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경제 위기상황을 거론한 뒤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 정부에만 맡겨놓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며 “당면한 민생경제위기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 개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국민의 명령이다.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명령을 지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며 “차제에 여야가 원구성 협상으로 허송세월하는 이 오랜 불합리도 이제 끝을 내야 한다”면서 국회법에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시한도 명문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 △대화과 타협이 꽃피는 국회 △삼권분립의 원칙에 충실한 국회 △헌법기관의 역할을 다하는 국회를 표방했다.

특히 “저는 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준수할 것”이라며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의장 중립 지키되 삼권분립 위해 역할 할 것 헌법상 국회 예산심의 · 의결권 대폭 강화될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위해 낡은 헌법 개정”

“의장 중립 지키되 삼권분립 위해 역할 할 것”이라며 “그러나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주저 없이 제 역할을 다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했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건강한 숲 상생의 국회를 만들겠다”면서 소수당 배려도 약속했다.

김 의장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심의 · 의결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개선해 정부예산 편성 단계별로 예결위 및 상임위원회에 예비 보고토록 하겠다”고도 했다. “나이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한법 전문 수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도 더는 미룰 수 없다. 35년 된 낡은 헌법 체계를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며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의원 모두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받는 공동운명체”라며 “21대 국회가 정치 대전환을 이룩한 국회, 새로운 희망을 만든 국회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 협치를 당부했다. /뉴시스

도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행자-김이재 · 환복-이병철
농산경-나인권 · 문건-이병도
교육위-김명지 도의원 등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는 4일 본회의장에서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이재 의원(전주4),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병철 의원(전주7),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에는 나인권 의원(김제1),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병도 의원(전주), 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명지 의원(전주11)이 각각 선출됐다.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은 “도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예산 인사 감사, 조직 등 행정의 4대 시스템을 살피는 곳이 행정자치위원회인 만큼 도정 시스템이 올바르게 정립되고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입안과 실행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은 “전북의 미래는 산림과 해양수산, 새만금에 달려 있으며, 도민의 삶의 질은 환경과 복지 · 의료보장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이들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의정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장은 “도정

목표인 도민경제 부흥과 농생명산업 수도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농정시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선도하는 전문 상임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병도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8기 전라북도 도정이 문화예술의 가치를 드높이고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산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상임위 역할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명지 교육위원장은 “새 교육행정 집행부가 과밀학급 · 교육복지 등 현안을 해결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보편적교육 교육행정이 펼쳐지도록 협력하는 동시에 강력한 견제를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도의회는 5일 제39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원장 선출과 운영위원회 구성을 끝으로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한다.

/김경수기자

“지역균형발전 위해 지방공항 활성화”

정운천 의원, 군산공항 군산-제주 노선 하루 4회 유지 관련

감축 계획으로 전북도민의 울분을 샀던 군산~제주 항공길이 기존 일 4회로 유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에 따르면 정운천 의원의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군산~제주 노선’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의 일 4회 유지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공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차별 없는 교통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전북도민들께 제대로 된 교통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당초 국토교통부는 하루 4회씩 운항하던 군산공항의 ‘군산~제주 노선’을 이달 15일부터 하루 2회 운항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정운천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전북도민들은 항공편이 부족해 가까운 군산공항을 봐두고 광주공항이나 청주공항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운천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공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차별 없는 교통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전북도민들께 제대로 된 교통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대의원 비중 ↓ · 국민여론조사 ↑... 민주, 전대 료 확정

각각 45→30% · 10→25%로... 권당 40% · 일반당원 5% 유지

더불어민주당은 4일 현행 본투표에서 대의원을 축소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오는 8월 전당대회 료를 확정했다. 지도부에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안구백 민주당 전담대회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 당대표 · 최고위원 선거는 본투표에서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안 위원장은 “(본투표)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해 대의원 비중을 현행 45%에서 30%로 낮추고 그만큼 국민(여론조사) 비중을 10%에서 25% 상향해 국민 비중을 150% 상향했다”며 “그때

서 (이번 전대에서는) 대의원 30% · 권리당원 40% · 일반당원 5% · 국민 25% (비율)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예비경선(컷오프) 선거인단도 모두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 기존 중앙위원회 100% 방식에서 중앙위원 70% · 국민 여론조사 30% 방식으로 치러진다.

경선 흥행 및 참여 보장을 위해 예비경선에서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3인, 9인 이상일 경우 8인을 경선에 올리기로 했다. 예비경선은 당대표의

경우 1인 1표, 최고위원은 1인 2표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득표율과 순위는 비공개하기로 정했다.

지도부에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현행 방식인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대표 권한 축소로 논란이 된 내용과 관련해선 추가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전대를 순회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